

비타악티바 자본주의

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

모호한 개념_자본주의 정의하기

대중이 먼저 사용

가치판단 개입

금기 또는 당연

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더 많이 쓰이는
자본주의

정치경제학과 계량경제학

정치 경제학

사회, 역사, 정치 맥락 속에서 경제학

스미스, 마르크스, 베버, 케인즈, ...

19세기, 20세기 초반

21세기 자본주의를 설명하
지 못함

주류 경제학

과학인척 하는 계량 경제학

시장 주의자, 시카고 학파

20세기

현실과 동떨어짐
구호로서 자본주의

자본주의 역사

- 11세기: 생산력 증가, 무역 네트워크 재건, 십자군 전쟁 → 상업 확장
- 14세기: 흑사병 창궐 → 세계관 변화
- 15세기~16세기: 르네상스, 복식부기, 상시 전쟁 상태 → 중상주의, 배금주의 등장
- 17세기: 지리 발견, 모험 산업 → 금융 혁명
- 18세기: 산업 혁명 → 자유방임 자본주의
- 19세기: 전지구 범위의 자본주의, 국가 독점 자본주의, 제국주의
- 20세기 초: 대공황 → 수정 자본주의
- 1980년 ~ : 금융 자본주의(신자유주의)
- 2008년: 세계 금융 위기

규칙을 이해하는 열쇠

생산

화폐

권력

생산

돈 벌고 싶은 욕망은 언제나 있었다. 자본주의는 무엇이 다를까?

사용을 위한 생산



이윤을 위한 생산

다른 생산구조는 다른 경제 원리, 다른 사회 체계를 필요로 한다.

울타리치기 ENCLOSURE

- 16세기, 영국 영주들이 영지에 울타리를 치고 마음대로 경작하지 못하게 한 사건
- 관습이 지배하던 사회 체계가 화폐로 측정되는 생산성 중심 사회로 재편되는 신호
- 자본가적 차지농업가(토지를 빌려 대규모로 농사를 지어 이윤을 남기는 자들) 탄생

생산

아담 스미스 국부론(1776년), 산업혁명기

-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하려고 쌓아두는 재화인 “자재stock”가 자본이다.
- 자본이 생산 과정의 주역이다.
- 이윤은 자본가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자본이 만들어 낸다

리카르도

- 인간 사회는 필연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.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을 축적하는 기계다.
-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생산성을 정체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사회는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, 즉 자본을 축적하는 기계가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.
- 어떠한 간섭도 없을 때 기계는 제일 잘 돌아가니 정치와 경제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.

생산

마르크스

- 생산성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력이다. 따라서, 자본 축적은 노동을 얼마나 많이 떼어내서 이윤과 자본으로 바꾸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.
-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. 노동 과정을 내가 계획할 수 없고, 생산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, 생산품도 내 게 아니다.
- 자본은 기계 같은 불변자본과 생산관계가 합쳐진 것이다.

화폐

화폐 경제 등장 배경

상시 전시 상태

막대한 재정 부담

복식부기 발명

금전 추구에 정당성 부여

화폐

“자본주의”하면 당연히 돈.

영국

- 산업혁명을 직접 겪으며 생산 혁신이 일어난 중심지

독일

- 영국의 성공을 바라 보며 “더 많은 이윤의 추구”라는 새로운 태도에 관심

생산관계 + 사회, 국가, 정신까지 아우르는 태도

화폐

좀바르트와 베버

- 근대 자본주의의 본질은 더 많은 화폐를 얻기 위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태도가 상인이나 영리조직을 넘어서 사회, 경제 체제 전체의 조직 원리로 확장되는 것이다.
-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배우고 익혀야 하는 태도다.
- 유태인과 프로테스탄트가 그 연원이다.
- 행동을 할 때 모든 것을, 심지어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수치화해서 돈으로 환산한다. 태도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회도 뒷받침해야 한다.

권력

생산과 무관한 방법으로 떼돈을 벌었던데?

무역, 전쟁, 식민지, 노략질

+

고위 금융

- 자본 축적에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.
- 자본주의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제도,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?

권력

중상주의 시대

- 시장 확대
- 모험산업
- 전쟁, 정복



금융업 발달(푸거가, 메디치가, 은행, 보험)
독점기업 발달 (동인도회사)
주식회사 발명

오늘날에도 권력은 자본주의를 움직이고 진화시키는 핵심

권력

브로델

- 원래 인간은 생산을 해왔다.
-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행위는 원래 있던 시장경제이고, 화폐를 더 가지려는 욕망도 원래 있었다.
- 자본은 재화, 서비스의 흐름을 독점하거나 뜻대로 바꾸어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권력이다.
- 권력의 최상층을 차지하는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지가 반드시 있다.
- 자본은 상황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산 활동에 깊이 몰려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.

권력

베블린

- 어느 시대, 어느 기술 단계에서도 총체적 기술이 집약된 생산수단은 있다.
-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생산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.
- 이 생산수단을 생산활동이 아니라 영리활동을 위해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사태가 자본주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자본이다.

자본주의의 역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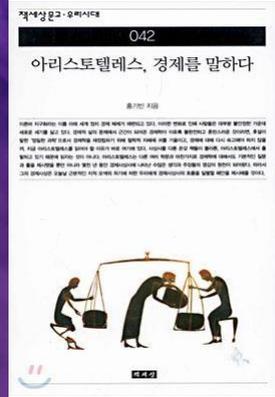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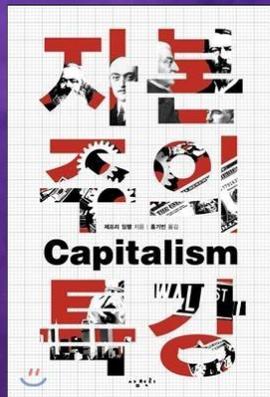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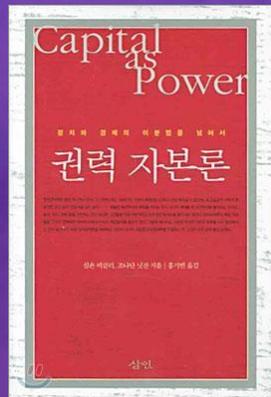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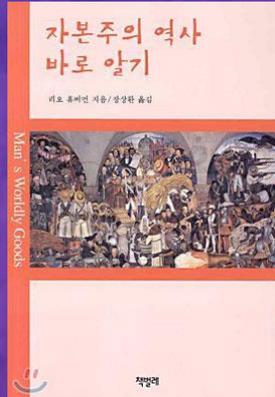
창조적 파괴

-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자원을 결합하여 혁신하는 창조적 파괴가 계속되는 한 자본주의는 멈추지 않는다.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가 멈출 때 사회주의로 이행한다. (숨페터)
- 창조적 파괴를 멈출지도 모르는 생태 위기조차 자본 축적의 계기로 삼고 있다.

자본주의의 역동성

-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도 계속된 자본 축적
- 노동자의 혁명성 쇠퇴
- 역사의 완성
- 신자유주의, 금융 자본주의 등장
- 2008년 전세계규모 금융위기, 재정위기
- 또 다른 변화는?
- 나라마다 자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본주의

자본주의의 역동성



감사합니다



MINNATION